

아시아 도자문화

Asian Ceramics Culture

국립광주박물관 뉴스레터 제14호
Gwangju National Museum Newsletter



달향아리
국립중앙박물관

CONTENTS

02 커버 스토리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
새 전시공간에서 다시 만나다 _이정인

04 도자 발굴
양산 가산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조사
_정일

06 도자 전시
세계도자실 “도자기에 담긴 동서 교류 600년”
_김희정

08 국제학술대회
도자기 해상 무역과 동서 문화 교류_김은경

10 국립광주박물관 소식
11 中文·日文 要約
12 English Abstract

창간일 2018년 3월 30일
발행일 2021년 6월 25일
발행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기획·편집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문의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최명지
TEL 062_570_7036
FAX 062_570_7066
MAIL gnmcad@korea.kr

원문(PDF 파일)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gwangju.museu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는 조선의 도자기 문화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국립중앙박물관 분청사기·백자실을 살펴본다.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 새 전시공간에서 다시 만나다

The Newly Established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Gallery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이정인 李廷仁 Lee Jungin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國立中央博物館 學藝研究士 National Museum of Korea, Curator
ljis@korea.kr

국립중앙박물관 3층 조각공예관에는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공예 상설전시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2월 18일에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새롭게 조성한 ‘분청사기·백자실’을 공개하였다. 기존의 분청사기실과 백자실을 하나의 전시실로 통합해, 새로운 콘셉트와 전시환경을 갖춘 ‘분청사기·백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500여 년을 이어온 조선의 도자기 문화를 짜임새 있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단장했다.

이번 전시 개편은 4가지의 주제로 이뤄진 조선시대 도자기 문화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한 공간에서 전시해, 조선 도자기의 역사적 흐름을 예술적 감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박물관 전시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해 기준 상설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시구성과 공간연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 아울러 국립박물관의 도자기 전공 학예연구사들과 상설전시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분청사기·백자실의 전시 구성은 조선 분청사기와 백자의 역사적·조형적 흐름을 400여 점의 대표 소장품으로 염선해 전시품의 정보와 관람객의 감상이 최적화된 전시조건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새로운 전시주제를 공간인테리어·진열장·조명·영상미디어·각종 그래픽 등 여러 전시연출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관람객과 전시품 모두에게 효과적인 전시환경이 되도록 개선했다.

관람객들이 첫발을 딛는 전시실 입구는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의 이미지를 현대

적 디자인의 개념과 요소로 재해석한 안내 사이니지(signage)를 설치해, 시대를 관통하는 분청사기와 백자의 예술적 요소를 먼저 접할 수 있다.

전시구성은 1부에서 4부에 걸쳐 분청사기와 백자의 시작, 분청사기의 소멸, 백자의 발전과 쇠퇴를 담았다. 1부 ‘조선의 건국과 새로운 도자 문화’와 2부 ‘관요 설치 이후 조선 도자기’에서는 조선 건국 이후 15~16세기까지 분청사기와 백자로 시작된 도자 문화를 전시했다. 세금으로 관리된 분청사기, 나라에서 관료를 세워 백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 상황에서 분청사기와 백자의 공존, 조선의 중심적인 도자기로 성장한 백자, 그리고 암료로 그려 장식한 청화백자와 철화백자의 예술적 경지도 함께 다뤘다. 특히 1부 영역에서는 관람객이 휴식하면서 조선시대 도자기 장인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사기장의 공방’ 공간을 마련했다. 전통을 이어 도자기를 제작하는 현대 장인의 영상과 함께 사기장의 공방을 연출한 공간, 그리고 이를 없는 조선의 장인들이 만든



달항아리 영상 연출 공간



도자기의 선과 색을 살린 조명기구 설치

사발 160여 점과 가마터에서 나온 파편 및 요업도구를 전시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선 도자기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다.

3부 ‘백자로 꽂피운 도자 문화’와 4부 ‘조선 백자의 대중화와 마지막 여정’은 16세기 말 이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백자 생산의 변화, 그리고 18세기 경제력의 상승과 대외 교류로 변성한 청화백자 문화, 이후 19세기 상업화된 시장 상품으로 등장한 다채로운 백자와 관요가 민영화되는 과정을 담았다. 3부에서는 조선 백자의 상징이 된 달항아리의 영상 연출 공간에서 달항아리의 충만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4부 영역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테마전시 공간에서는 ‘백자 제기로 올린 의례’를 전시해 의례용으로 정착한 백자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이 같은 전시주제를 살리기 위해 전시품 진열의 중요한 장치인 진열장을 새롭게 제작해 전시품의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진열장 내 벽면과 바닥, 진열장 유리, 받침대 등의 내장재를 신소재로 시공하고, 조명기구를 개선해 도자기의 선과 색을 살렸다. 전시공간의 배색과 천장 조명도 바꿔 전체적인 공간의 조화를 추구했다. 아울러 각종 디지털미디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청사기와 백자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편리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접할 수 있게 연출했다. 또한 전시품의 관련 정보와 디테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전시품의 예술성을 살린 영상작가의 작품을 설치했다.

이번 ‘분청사기·백자실’의 새 단장은 조선 도자기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모든 작업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한 데 모은 것이다. 분청사기와 백자의 새로운 전시공간은 가장 이상적이고 예술적인 조건에서 전시품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관람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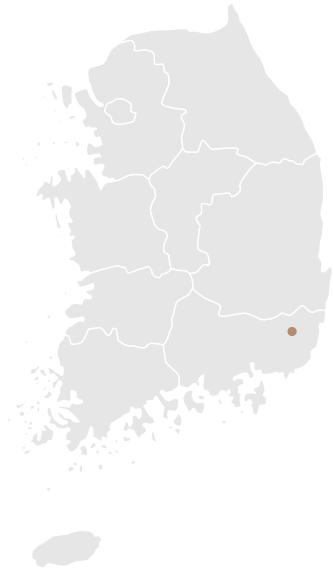


↑ 1부 ‘조선의 건국과 새로운 도자 문화’ 전시 공간
↓ 테마전시 ‘백자 제기로 올린 의례’ 전시 모습

도자 관련 최신 발굴 성과를 소개하는 코너로, 이번 호에서는 2020년에 실시한 양산 가산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성과를 공개한다.

양산 가산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조사

Achievements of the Excavation Survey
of the Buncheong Kiln Sites in Gasan-ri, Yangsan



정일 鄭一 Jung Il

(재)대한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관 (財)大韓文化財研究院 調査研究官

Dae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researcher

one0220@naver.com

조사개요

조사명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구간 내(구역) 유적

조사지역 경상남도 양산리 동면 가산리 산 7-1

조사기간 2020년 12월 24일 ~ 2021년 3월 25일

조사기관 (재)대한문화재연구원

↑ 1호 가마 전경(요전부·아궁이·번조실)

↓ 2호 가마 전경

조사경위

양산 가산리 발굴조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에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는 2013년에 (재)한겨례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하였는데, 가산리 분청사기요지I을 포함하여 총 12개소의 유적을 확인하였다. 발굴조사는 3개 기관에서 분담하여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원에서는 가산리 상리유물산포지, 가산리요지I, 가산리 옹기요지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 및 폐기물 퇴적[폐기장] 2기를 포함하여 옹기 가마, 삼가마, 수혈, 고상건물지, 소성유구, 경작유구, 구상유구 등을 확인하였다. 일부 유구를 제외하면 모두 가마 등의 생산유구로 양산지역 분청사기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사내용

양산 가산리 분청사기 가마 2기는 입지, 구조, 유물구성, 연대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입지에 따른 가마의 변화 양상이 확인된다. 양산 가산리 1호 가마는 해발 84.76m의 능선 북동사면, 2호는 해발 60.34m의 남서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2호 가마가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있어 산사면 아래에서 위쪽으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인근의 가산리 호포 가마를 포함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두 번째로 가마의 구조 차이가 확인되는데, 1호 가마는 반지하식, 2호 가마는 지상식구조이다. 요전부는 1호에만 확인되는데 퇴적과정을 통해 가마의 소성 및 개축이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을





호수	장축 방향	경사도	규모(cm)					출토유물
			잔존 길이	요전부	아궁이	번조실	연도부	
1호	남-북 (N41° E)	16°	2,910	길이 660 너비 384 높이 142	길이 172 너비 206 높이 110	길이 1,650 너비 184 높이 30	길이 364 너비 256 높이 28	인화문분청, 귀얄분청, 백자, 제기, 명문분청, 도자미, 어망추, 깁발, 요도구
2호	남-북 (N42° E)	13°	1,170		길이 220 너비 284 높이 150	길이 936 너비 152 높이 26		상감분청, 인화분청, 명문분청, 깁발, 도자미, 어망추

확인할 수 있었다. 1호 가마의 아궁이는 두 차례 개축과정이 있었는데, 최초에는 점토벽을 사용하다 개축을 통해 석축 벽으로 변화된다. 보수 시에는 주변에 기둥을 세웠던 주공도 확인하였다. 바닥은 최초에는 'L'형태의 구를 파서 여러 매의 뚜껑돌을 놓은 형태이며 개축 시에는 점토바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호 가마는 한차례 개축과정이 확인된다. 벽은 처음부터 석축 벽을 횡으로 정연하여 구축하였고 보수 시에는 할석과 점토를 혼합하여 거칠게 보수 후 사용하였다. 바닥은 1호와 달리 점토바닥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궁이는 1호는 개축과정에서 석재를 횡으로 쌓아 사용하였고, 2호는 석재를 세우고 후면에 점토를 보강한 구조로 서로 차이가 있다. 2호 가마는 지상식으로 아궁이와 번조실 사이를 판축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판축토는 약 2~4cm 두께로 얇고 사질을 많이 포함하여 단단하게 다짐 조성하였다. 번조실은 단면조사를 통해 모두 1~2차례의 보수 흔적을 확인하였다. 출입시설은 1호는 완쪽, 2호는 오른쪽에 있는 차이가 있다. 1호 연도부는 장방향으로 중앙부에 반원의 돌출된 굴뚝이 있으며, 굴뚝은 사선으로 소결된 상태이다. 번조실 끝에는 불넘이 시설이 있는데 약 10cm 정도 단 차이를 두고 양쪽에 대형 할석 2매를 세운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세 번째로 1호 가마와 2호 가마는 유물구성의 차이를 보인다. 1호는 인화분청이 다수를 차지하며 상층에서 귀얄분청, 연소부 상층과 주변에는 소량의 백자가 출토되었다. 기종은 발, 접시 등이며 병, 호, 잔, 종자, 호, 관사명자기, 제기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기는 보(壺), 호준(壺樽), 상준(像樽), 고족배(高足杯) 등으로 양산 가야진사 출토품과 동일한 형태이다.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관계를 명확하게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관사명(官司名)은 약 150여 점이 출토되는데 폐기물 퇴적[폐기장]의 모든 층에서 양산 장흥고(長興庫), 양산 내 섭시(內贍寺), 양산 인수부(仁壽府) 등이 출토되고 있다. 2호는 상감분청사기와 함께 인화분청이 함께 나왔다. 기종은 발, 접시가 주종이며 잔, 호 등이 소량 출토된다. 관사명은 약 18 점으로 상감분청 대접, 접시 등에는 흑상감으로 양산, 장흥, 장흥고, 사선(司膳), 인화분청에

는 내섭시가 음각되어 있다. 1호는 상감분청, 2호 인화분청에 제기품이 다수 출토되고 있어 시기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산리 일대 가마는 호포에서 발굴조사된 상리지역으로 계기적인 변화가 정설이었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통해 2호는 말기 청자에서 초기 분청사기로의 과도기적인 시기의 가마이며 1호는 15세기 중반에서 후반대의 분청사기 가마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산리 일대 분청사기 가마는 가산리 상리 2호→가산리 호포→가산리 상리 1호 순으로 운영된 것임을 새롭게 밝혀냈다.

조사성과

양산 지역 분청사기 가마터는 현재까지 약 5개소 정도가 보고되어 있는데 수습유물을 통해 14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경에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양산 가산리 분청사기 발굴조사는 정식으로 조사한 첫번째 사례로 이 지역 분청사기 가마의 구조 및 성격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산 지역이 『世宗實錄地理志(세종실록지리지)』의 경상 지역 8개소 중품 자기소 중 하나로 추정하였던 곳으로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금음산리(今音山里) 중품(中品) 자기소(磁器所)'가 가산리 일대 임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분청사기 가마 이외에도 옹기가마, 삼가마 등이 확인되고 있어 가산리 일대가 요업(窯業)활동의 최적의 장소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내외 도자 관련 전시를 소개하는 코너로, 도자기를 매개로 세계문화의 교류 현상을 살펴본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도자실을 소개한다.

세계도자실 “도자기에 담긴 동서 교류 600년”

World Ceramics Gallery:
600 Years of East-West Exchange through Ceramics

김희정 金喜靜 Kim Heejeong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國立中央博物館 學藝研究士
National Museum of Korea, Curator
mocdori@korea.kr



크락양식의 백자청화사슴무늬접시
중국, 명 1610~1630년, 경덕진요,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전시개요

전시기간	2021년 1월 25일(월) ~ 2022년 11월 13일(일)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세계문화관 세계도자실
전시유물	네덜란드 차용품(중국 청화백자 등) 113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30점(총 243점)

〈세계도자실〉은 특정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세계 여러 문화가 교류하는 양상, 특히 도자기를 매개로 한 17–18세기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동서양이 상호 어여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고자 마련한 공간이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하였다.

전시 1부에서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기와 교역〉이라는 주제로 중국 청자와 백자, 고려청자를 전시하여 동양의 자기 발생을 보여주며, 더불어 청화백자를 모티브로 한 파란 지구가 있는 맵핑 영상을 전시실 전체를 개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부에서는 〈16세기 이전 중국의 대외 무역, 해상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사실상 대항해시대 이전의 동남아시아는 물론 이슬람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중국의 해상 무역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컬렉션으로, 1323년 중국 경원항(慶元港, 현재 낭보[寧波])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항해하다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빠진 200톤 급 침몰선에 실렸던 중국 원대 도자기(신안해저문화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교류도 확인하였다.

세계도자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3부에서는 〈대항해의 시대, 동양을 건너간 동양의 자기〉라는 주제로 유럽에서 수입한 다양한 동양 자기



주전자와 화로, 네덜란드,
1775~1778년경,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17세기까지 ‘포슬린(Porcelain)’이라고 불리는 자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했던 유럽은 말라카(Malacca) 해협 연안 국가들의 중개무역으로 동양의 자기를 소량으로 수입하였다. 이후 유럽에서는 발달한 항해술을 바탕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항로를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동양 자기를 수입하였다. 초기에는 포르투갈 주도로 중국 명(明)대 자기를 수입하였다만,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VOC), 1602~1799년]를 설립하면서 많은 양의 명·청대 중국 자기가 유럽에 유입되었다.

3부의 첫 번째 주제인 ‘중국 청화백자에 열광하는 유럽’에서는 당시 ‘화이트 골드’라고 불렸던 중국 자기가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소개하였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를 구분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 독특한 양식의 ‘크락(Kraak·Craak)’ 자기는



전시실 3부 ←
전시실 4부 →



칠면조 파이가 있는 정물, 1627년,
피터르 클라즈(Pieter Claesz, 1597~1660),
암스테르담 레이크스국립박물관

일본 아리타에서 만든 커피포트
일본, 에도 1730~1750년,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유럽 상류사회는 물론 일반 가정에도 하나쯤 소장해야하는 인기 품목이었다. 크락 자기의 인기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정물화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독일 샤를로텐부르크 성이나 스페인 산토스 궁의 예처럼 유럽 각국의 군주와 상류층은 앞다투어 중국 자기를 수집하였고, 성과 방을 장식하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은 거센 중국열풍을 ‘시누아즈리(Chinoiserie)’라고 한다.

한편 17세기 중엽 중국의 명·청 교체기, 내부 혼란으로 자기의 생산과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 틈새시장을 일본 자기가 차지하였다. 3부의 두 번째 주제 ‘세계 도자기 시장의 새로운 바람, 일본 자기’에서는 일본의 자기 탄생 과정과 대표적인 수출자기인 ‘이마리(伊萬里) 자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4부에서는 <유럽 자기 시장의 변화, 도기와 자기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먼저 도기에서 일어난 변화를 소개하였다. 16세기 네덜란드 델프트에서는 도기를 제작하였다. 고가의 중국 청화백자 시장을 비집고, 푸른색 도기(Delft Blue) 열풍을 일으킨 델프트 도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서민들도 ‘중국풍’을 누릴 수 있게 하였으며, 중국 자기 모방에 그치지 않고 점차 델프트 도기만의 개성을 창조하며 약 100년 간 호황을 누렸다.

유럽인들은 처음 중국 자기의 특징이 고령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러 흙과 재료를 뒤섞어 수차례 실험하고, 숱한 시행착오 끝에 1709년 독일 작센 공국의 드레스덴 연구실에서 경질백자가 뷔트거(Böttger)에 의해 탄생하였다. 이후 1710년 아우구스투스 2세(August II)가 마이센에 ‘로열 작센 자기 제작소’라는 공장을 세워 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비로소 ‘자기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마이센 자기는 유럽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도안, 섬세한 채색과 금채 기술, 빼어난 조각 기술이 더해져 경제적 가치는 물론 예술성까지 높이 사면서 유럽 3대 명요로 불렸다. 이러한 마이센의 기술력은 오스트리아 빈(Vienna) 제작소를 시작으로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다. 전시실에서는 마이센 자기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에서 제작한 자기를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 유럽에 들어온 엄청난 양의 동양의 자기는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에 부를 안겨줬지만 결과적으로 유럽 자기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중국과 일본의 자기 수출은 감소하고 동양은 자기 생산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세계 자기 생산의 중심이 동양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

도자기 해상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동서 문화 교류를 소개한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신설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소개한다.

도자기 해상 무역과 동서 문화 교류

Maritime Ceramic Trade and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김은경 金恩慶 Kim EunKyoung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德成女子大學教 人文科學研究所 研究教授
Duk Sung Women's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Research, Research Professor
dshr@duksung.ac.kr



국립중앙박물관은 동양미술사학회와 공동으로 5월 21일(금) 세계문화관 세계도자실 신설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도자기 해상 무역과 동서 문화 교류』로 해상 무역로를 따라 서양으로 건너 간 동양의 도자기가 촉발시킨 동서 문화의 변화 양상을 문명교류사적 시각에서 충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세계도자실 전시에 소개한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Princessehof National Museum of Ceramics)과 흐로닝어르 박물관(Groninger Museum)의 소장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닷길을 통한 도자기의 대규모 해상무역은 자연히 세계를 하나로 묶기 시작하면서 동서 문명의 융합을 가져온 세계사의 일대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대만, 중국, 네덜란드 등 4개국 12명의 도자사학자들이 참여하여, 그간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져 국내외 학계는 물론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본 학술대회는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수출된 동아시아의 무역자기를 조망하였으며,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부 기조강연으로 세계문화관 세계도자실 전시를 담당한 김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세계도자실 전시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 확장된 시선'을 모토로 삼은 세계문화관의 세계도자실 전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기와 교역'부터 16세기 이전의 해상실크로드와 대항해시대를 거쳐 유럽자기의 탄생까지 총 4부로 구성한 전시실의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며, 도자기의 해상 무역이 동서 교류의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어 중국 복단대학교의 류자오후이[劉朝暉] 교수는 「이역(異域)의 창조: 프롱크(Pronk)의 '양산을 든 부인' 자기 접시 연구」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네덜란드 화가이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위해 자기의 도안을 담당했던 코르넬리스

프롱크(Cornelis Pronk, 1691~1759)의 〈'양산을 든 부인' 자기 접시〉는 대항해시대를 풍미했던 중국 무역자기의 상징과도 같은 매우 유명한 작품으로 일찍이 해외 연구자들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에 류교수는 기존 연구의 쟁점을 다시 짚어보면서, 도상의 전래과정과 재매개 과정,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교류되었던 양상을 통해 18세기 중서(中西) 문화 교류에서 감지되는 '이역(異域)'과 '타자(他者)'인식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산을 든 부인' 도상의 의미에 대하여, 끊임없는 변모의 주요 동력을 문화 간 교류와 상호작용에 의한 것, 즉 유럽이 내부에서 소비한 이역 형상만이 아닌 동방의 도공들이 다시 인용하고 차용하며 본토 문화 요소와 융합한 도상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았다.

장효진(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국립박물관의 대표적 무역도자인 '신안선 출수 도자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신안선 출수 고족배를 통해 본 중·일 도자 교류」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원대에 새롭게 출현한 고족배(高足杯)가 일본에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주문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일본에서 주기(酒器) 혹은 다기(茶器)로 사용한 사례 외에도 후대 다실에서 향로로 사용했던 새로운 용도를 문헌기록을 통해 증명하였다. 수출자기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신안선 출수 고족배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본 발표는 향후 신안선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오채 '양산을 쓴 부인 접시', 1736~1740, 윌터터 미술관
 → 청자철반문고족배(신안 17477), 원, 용천요, 국립중앙박물관
 → 카르 왕조의 '마수드 미르자' 왕자를 위해 제작된 광채접시청, 1879년, 광동 아시안 아트 뮤지엄

네덜란드 흐로닝어르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크리스티안 요르흐 (Christiaan J.A. Jörg,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 교수는 「네덜란드 난파선: 해저 선과 헬데르말선호에서 나온 중국 수출 자기 양상」을 통해 대항해시대 활약했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중국 자기 무역 양상과 특징을 발표하였다. 해저선과 헬데르말선호에서 출수된 17세기 중국 무역도자기는 네덜란드의 물질문화에서 어떻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이라 보았다.

이에 2부에서는 김은경(덕성여대) 연구교수가 「청대 도자 중서(中西) 교류의 전개와 확장: 광채(廣彩)와 이슬람 세계」의 발표로 서문을 열었다. 본 연구는 18~19세기 이슬람으로 수출된 광동의 광채자기에 관한 것으로, 그간 유럽의 시누아즈리 열풍에 가려 주목되지 않았던 청과 이슬람 세계와의 도자교류에 주목하였다. 특히 중서(中西) 도자 교류 연구가 유럽 중심으로 편향된 국내외 학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동서 도자 교류의 한 측면을 새롭게 소개한 것은 중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위페이진[余佩瑾] 부원장은 「17·18세기 도자 동서교류 속의 영롱척투(玲瓏剔透)」 발표를 통해 청대 건륭년간(재위 1736~1795) 관요기(官窯器) 목록에 등장하는 '영룡(玲瓏)'의 어원을 추적하고, 16세기 말 동서항로의 무역상품으로 등장한 사실을 네덜란드의 해저선 출수품과 선적목록 등의 비교를 통해 증명하였다. 또 영룡자가 도자 무역을 통해 유럽과 이슬람으로 수출되는 것은 물론, 일본 아리타 무역자기에 영향을 준 예 등 동서 도자교류 시각에서 영룡자기를 다루어 청 관요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정민(명지대) 교수는 「조선 후기 한양도성(漢陽都城)의 외국자기 소비 양상」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17~19세기 서구열강이 아시아 도자 무역에 열광할 때, 동시기 조선의 외국자기 소비양상은 어떠했는지 한양 도성 출토품을 통해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 출토된 청나라와 일본 자기 사용 양상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지역성'으로 조선시대 한양 도성이 가진 도자문화의 또 다른 면모를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6명의 연구 발표에는 방병선(고려



양채금지영룡투병, 청, 건륭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대), 장남원(이화여대), 이종민(충북대) 교수를 비롯하여, 김영미(전 국립중앙박물관), 김현정(국립고궁박물관), 최명지(국립광주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의 학예관과 학예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방청객의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현장 참여자는 물론 해외의 전문 연구자와 학생들이 유튜브 방송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외 학계의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 발표영상은 향후 국립중앙박물관 및 동양미술사학회 유튜브 계정에 공개할 예정이며, 발표논고는 9월에 발간되는『동양미술사학』13집 특별판으로 정식 출판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는 영상과 논문집 발간을 통해 국외 학계와의 활발한 공유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 도자사학계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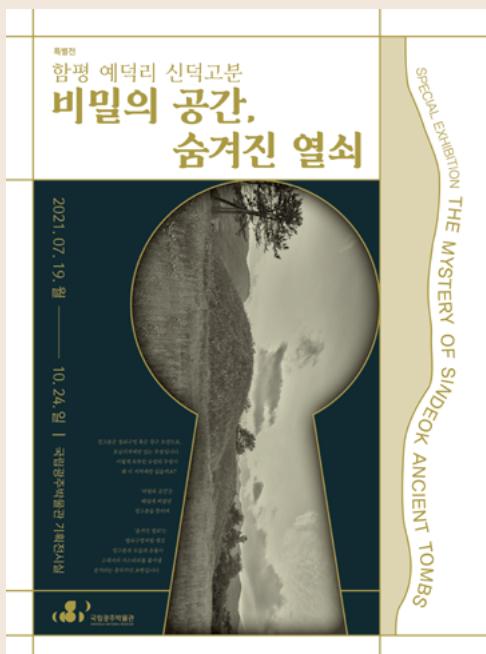
THE MYSTERY OF SINDEOK ANCIENT TOMBS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전시기간 2021. 07. 19.(월) ~ 2021. 10. 24.(일)

전시장소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금동관 등 800여 점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개최한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은 호남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삼국시대 장고분(長鼓墳; 장고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중 하나이다. 무덤의 모양이 일본 고훈시대[古墳時代]의 무덤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비슷하여 주목을 받았지만, 이러한 무덤이 조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30년 전인 1991년 3월, 도굴된 신덕고분을 발견한 국립광주박물관은 무덤 내부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고분의 매장시설이 돌방[石室]임을 최초로 밝혔고, 돌방 내부에서 화려한 장신구를 포함한 다양한 유물을 확인하였다. 그 후 도굴되었던 유물을 다시 찾았고, 3차례의 추가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무덤의 정체를 조금씩 밝혀가기 시작하였다.

발굴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출토되었던 유물을 처음으로 한 데 모아 전시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한 성과를 정리하여 공개한다.

전시 구성은 총 5부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주제는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의 발견과 조사, 그 결과를 순서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를 충실히 담았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직접 표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장고분은 오랫동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미스터리한 무덤이었다. 여러 장고분을 조사하였지만 신덕고분만큼 껴문거리의 구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신덕고분이 장고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것이다. 처음으로 신덕고분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호남지역 장고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죽은 이를 위한 공간, 그 속에 담긴 1,500여 년 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국립광주박물관 도자 전문 학술지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제4호 원고 모집

국립광주박물관은

국내·외 도자문화 관련 학술논문 및 자료를 모은 학술지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4호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학술지명 **아시아 陶磁文化 研究 제4호**

마감일자 2021년 9월 30일

심사일자 2021년 10월 31일

발간일자 2021년 12월 6일

※ 게재 확정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지급

원고분량 (논문)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사진, 도면 등 포함)

(자료)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사진, 도면 등 포함)

제출방법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학술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 원고접수

※ 7월 1일 이후 제출 가능

문의 062-570-7809

亚洲陶瓷文化 国立光州博物馆新闻通讯 第十四号

要約

02 封面故事：在全新展厅邂逅朝鲜的粉青沙器与白瓷

——国立中央博物馆粉青沙器·白瓷室升级改造

国立中央博物馆学艺研究士李廷仁介绍该馆历时一年多筹备之后今年2月18号正式对外开放的“粉青沙器·白瓷室”。“粉青沙器·白瓷室”甄选展陈400多件极具代表性的朝鲜时期粉青沙器、白瓷，以此介绍其历史、造型演变。展览第一到第四单元分别介绍粉青沙器和白瓷的开始、粉青沙器的没落、白瓷的发展与衰落。在此次“粉青沙器·白瓷室”焕新颜的过程中，各部门专家在诠释和视觉传达朝鲜陶瓷历史和文化的各项工作上不遗余力地投入了全部心血，在最理想的艺术氛围下展示展品价值。欢迎光临全新的展示空间，感受粉青沙器和白瓷的艺术传承价值。

04 陶磁发掘：梁山市架山里粉青沙器窑址发掘调查

财团法人大韩文化财研究院调查研究官郑一介绍位于庆尚南道梁山市架山里的两座粉青沙器窑址的发掘成果。经调查确认，两座粉青沙器窑址在选址、结构、遗物、建造时期等方面有所不同。一号窑址是15世纪中期至后期的粉青沙器窑炉，二号窑炉则是晚期青瓷向早期粉青沙器过渡时期的窑炉。本次梁山市架山里粉青沙器窑址发掘调查是正式实施调查的首例，将为查明当地粉青沙器窑炉的结构与特性提供有力证据。

06 陶瓷展览：世界陶瓷室——“陶瓷器讲述的六百年东西文化交流史”

国立中央博物馆学艺研究士金喜静介绍该馆在世界文化馆新设的世界陶瓷室。世界陶瓷室着重介绍世界各地文化交流中17~18世纪通过海上贸易进行的东西方陶磁交流与其影响。展览由四个单元组成。分别是“诞生于亚洲的瓷器与贸易”、“16

世纪以前中国的对外贸易、海上丝绸之路”、“大航海时代、跨越大洋的东方瓷器”、“欧洲瓷器市场变化的开始——制造陶器、瓷器”。

08 国际学术大会

德成女子大学人文科学研究所研究教授金恩庆介绍由国立中央博物馆、东洋美术学会为纪念世界文化馆世界陶瓷室新设联合举办的国际学术会议内容。会议在《陶瓷海上贸易与东西文化交流》的主题下，从文明交流史的观点探讨经过海上贸易路传入到西方的东方陶瓷、其所引起的东西方文化的演变。来自韩国、中国、台湾、荷兰的12名陶瓷史学者在会上探讨了向东西方出口的东亚贸易瓷器。

10 国立光州博物馆动态

国立光州博物馆特展《咸平礼德里新德古坟——秘密的空间、隐藏的钥匙》

国立光州博物馆将举办2021年特展《咸平礼德里新德古坟——秘密的空间、隐藏的钥匙》。咸平礼德里新德古坟是仅见于韩国西南部地区的三国时代长鼓坟(Hourglass-drum tombs)之一，本馆自1991年起已对此进行四次发掘调查。本次特展首次在一地展出出土于古墓的金铜冠等800多件遗物，梳理介绍其间的研究成就。

国立光州博物馆陶瓷专业学术期刊《亚洲陶瓷文化研究》第四期征稿启事
国立光州博物馆出版发行的学术期刊《亚洲陶瓷文化研究》刊登介绍国内外陶磁文化方面的学术论文及资料，现将第四期期刊的征稿内容公布如下。

正文(PDF文件)可在国立光州博物馆官网(gwangju.museum.go.kr)下载。

アジア陶磁文化 国立光州博物館ニュースレター 第14号

要約

02 カバーストーリー：朝鮮の粉青沙器と白磁、新しい展示空間で公開

——リニューアルオープンした国立中央博物館「粉青沙器 白磁室」

1年余りにわたるリニューアル作業を終えて今年2月18日にオープンした国立中央博物館の「粉青沙器 白磁室」を、李廷仁(イ・ジョンイン)学芸研究士が紹介します。「粉青沙器 白磁室」は第1部から第4部にかけて粉青沙器と白磁の始まり、粉青沙器の消滅、白磁の発展と衰退を紹介し、合わせて約400点の所蔵品を展示しています。また、朝鮮の陶磁器の歴史や文化を解説し、視覚化するすべての過程で各分野の専門家の力を集め、最も理想的で芸術的な条件で展示品の価値を伝えるための展示空間にしました。朝鮮の粉青沙器と白磁の歴史や造形性の変化を一目でご理解いただけるでしょう。

04 陶磁の発掘：梁山架山里粉青沙器窯跡の発掘調査

大韓文化財研究院の鄭一(チョン・イル)調査研究官が、慶尚南道梁山市(ヤンサンシ)架山里(カサンリ)の朝鮮時代の粉青沙器窯2基の発掘成果を紹介します。本調査で発掘された2基の粉青沙器窯は、立地、構造、遺物の構成、製作時期などにおいて相違点が見られます。1号窯は15世紀半ばから後半のもので、2号窯は末期の青磁から初期の粉青沙器へと移行する過渡期のもの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今回の発掘調査は、梁山架山里粉青沙器窯の正式な調査としては初めての事例で、当地域の粉青沙器窯の構造や性格を解明するうえで非常に重要な資料となるものとみられます。

06 陶磁の展示：世界陶磁室 “陶磁器に見る東西交流600年”

国立中央博物館の金喜静(キム・ヒジョン)学芸研究士が、国立中央博物館世界文化館に新設された世界陶磁室を紹介します。「世界陶磁室」は、陶磁器を媒介とした17~18世紀の海上貿易を中心に東洋と西洋が相互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かを示すために設けられた空間です。第1部「アジアで生まれた磁器と交易」、第2部「16世紀以前の中国の対外貿易、海上シルクロード」、第3部「大

航海時代、大洋を渡った東洋の磁器」、第4部「ヨーロッパ磁器市場の変化の兆し、陶器と磁器を作る」から成っています。

08 国際学術大会

徳成女子大学人文科学研究所の金恩慶(キム・ウンギョン)研究教授が、国立中央博物館と東洋美術史学会が共催した、世界文化館世界陶磁室の新設を記念する国際学術大会を紹介します。本学術大会のテーマは「陶磁器の海上貿易と東西文化交流」。海上貿易路を通じて西洋に渡った東洋の陶磁器がもたらした東西文化の変化の様相を文明交流史の視点から紹介するために企画されました。韓国、台湾、中国、オランダの4カ国 地域から12人の陶磁史学者が参加して、東アジアの貿易磁器について知見を共有しました。

10 国立光州博物館のニュース

国立光州博物館特別展「咸平礼德里新德古墳 — 秘密の空間、隠された鍵」

国立光州博物館は2021年特別展「咸平礼德里新德古墳—秘密の空間、隠された鍵」を開催します。咸平(ハムビヨン)礼德里(イェドクリ)新德(シンドク)古墳は、韓国西南部一帯でのみ確認されている三国時代の長鼓墳(Hourglass-drum tombs)で、1991年から国立光州博物館が4回にわたり発掘調査しました。今回の特別展では金銅冠など約800点の出土品を初めて一堂に集めて公開するとともに、学界のこれまでの研究成果を紹介します。

国立光州博物館陶磁専門学術誌『アジア陶磁文化研究』第4号 原稿募集
国立光州博物館は、国内外の陶磁文化に関する論文や資料を集めめた学術誌『アジア陶磁文化研究』第4号の原稿を以下のとおり募集します。

原文(PDFファイル)は国立光州博物館ホームページ gwangju.museum.go.krで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Asian Ceramics Culture

ABSTRACT

02 Cover Story

Exploring Joseon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in a New Space: The Newly Established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Gallery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ee Jungin, a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troduces the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Gallery unveiled this past February 18 following a year of preparation. It showcases more than 400 highlights from the museum's collection presenting the historical and formative development of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exhibition is comprised of four sections spanning the emergence of these two types of ceramics, the extinction of buncheong, and the further development and eventual decline of white porcelain. The new gallery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expertise of professionals from diverse disciplines who interpreted and visually conveyed the history and culture of Joseon ceramics. Visitors are invited to appreciate this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displayed under creative yet still maximal conditions.

04 Excavation

Achievements of the Excavation Survey of the Buncheong Kiln Sites in Gasan-ri, Yangsan

Jung Il, a researcher at the Dae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introduces the recent excavation of two Joseon-era buncheong kiln sites in Gasan-ri, Yangsan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two kiln sites explored in the survey display differences in features, including their geographical conditions, structure, composition of relics, and period of construc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Kiln No. 1 was used for the production of buncheong ware from the mid- to late fifteenth century while the second was operat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celadon to buncheong ware. This was the first official excavation of the kiln sites in Gasan-ri, Yangsan, and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resources for explor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kilns of the region.

06 Exhibition

World Ceramics Gallery: 600 Years of East-West Exchange through Ceramics

Kim Heejeong, a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troduces the new World Ceramics Gallery within the World Art Gallery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World Ceramics Gallery is dedicated to displaying how the East and West influenced each other through the maritime trade in ceramics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e exhibition is comprised of four

sections: "The Birth of Porcelain in Asia and the History of the Porcelain Trade," "China's Overseas Trade before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Maritime Silk Road," "In the Age of Exploration, Eastern Ceramics Cross the Ocean," and "Signs of Change in the European Porcelain Market: Europe Begins to Produce Earthenware and Porcelain."

08 International Symposium

Kim EunKyoung, a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Research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introduces an international symposium co-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Association of Eastern Art History in commemoration of the opening of the World Ceramics Gallery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Under the theme of "Maritime Ceramic Trade and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the symposium aimed to present transformations in cultures in the East and West triggered by the porcelain that reached the West through maritime trad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xchanges. The event brought together twelve scholars from four different countries (Korea, Taiwan, China, and the Netherlands) to explore the East Asian export wares that were shipped to the West and to other nations within Asia.

10 Gwangju National Museum News

Inauguration of the Special Exhibition *The Mystery of the Sindeok Ancient Tombs*

The Gwangju National Museum is presenting The Mystery of the Sindeok Ancient Tombs as its special exhibition for 2021. The Sindeok Ancient Tombs in Yedeok-ri, Hampyeong are an example of the hourglass-drum tombs dating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that are found only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The tombs were surveyed during four investigations led by the Gwangju National Museum beginning in 1991. The exhibition brings together for the first time more than 800 relics that were uncovered from the tombs and presents them along with academic findings on the tumuli.

Call for Papers for the Journal of Asian Ceramics Culture (Vol. 4)

Gwangju National Museum is currently accepting submissions for the fourth issue of the publication as below: Name of Publication: Journal of Asian Ceramics Culture (Vol. 4)

Paper Submission Deadline: September 30, 2021

Review of Submission: October 31, 2021

Publication: December 6, 2021

This newsletter is available for download as a PDF from the museum website (gwangju.museum.go.kr).